

## 존 토마스 와 루넨버그 서신

글: 더글러스 포스터(Douglas A. Foster)\*

번역: 조동호(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알렉산더 캠벨의 경력에서 1837년 9월에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은 그의 가장 깊은 헌신과 가장 당혹스러운 모호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 독보적인 사건이었다. 캠벨의 진술은 침례, 구원, 교회의 경계에 관해 3년에 걸쳐 열띤 토론을 촉발시켰으며, 이 모든 것이 그의 개혁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버지니아 주 루넨버그에 사는 한 “양심적인 자매”가 캠벨에게 보낸 서신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글쓴이는 캠벨이 1837년 8월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지에 자신에게 동조하는 영국환원운동의 지도자이자 「영국판 새천년시대의 선구자」(British Millennial Harbinger)지의 편집자인 제임스 윌리스(James Wallis)에게 쓴 논평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캠벨은 자신이 쓴 글들의 다수를 윌리스가 재인쇄하는 것과 그에게 보내는 자신의 지지를 확실히 하려는 글을 썼다. 캠벨은 매월 서신을 보내 영국 교회들에게 조언하고 미국에서의 개혁 소식을 전하겠다고 약속하였다.<sup>1)</sup>

윌리스는 캠벨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선교 단체, 노예제 반대 단체, 금주 단체 같은 조직들에 참여해야 한다고 믿는지 여부를 물었다. 캠벨은 미국에서 개혁에 동참하는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단체들을 조직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고, 그 이유가 그 단체들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종종 포함되기 때문이고, 그 단체들은 교회가 행하고 있을 일을 행하는 인위적 기관들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캠벨은 계속해서 개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우리의 형제교회들에 소속되어 있든 아니든,” 그런 가치 있는 일들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자신은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캠벨은 “나는 모든 개신교 교단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이(in all Protestant parties Christians) 그들과 우리의 상대적인 지식과 기회들에 비추어 볼 때, 그들도 우리 자신들만큼이나 모범적인 것을 발견한다.”고 진술하였고, 그는 윌리스에게 “내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선한 양심과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신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sup>2)</sup>

루넨버그에서 서신을 보낸 여성은 이 진술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sup>3)</sup> 그녀는 캠벨이 “모든 개신교 교파들을 그리스도인들로”(the Protestant parties as Christians) 인정한 것에 받은 충격을 피력한 후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아무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누구에게

\* 이 글은 더글러스 포스터(Douglas A. Foster)의 책, A Life of Alexander Campbell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20) 제11장에 실린 내용이다. 본서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은 쿤란을 통해서 번역서로 출판될 예정에 있으므로 이 글을 온라인에 올리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 「영국판 새천년시대의 선구자」지는 1835~1836년에 스코틀랜드 침례교인 윌리엄 존스(William Jones)가 출판한 Millennial Harbinger and Voluntary Church Advocate지의 후신이었다. 존스는 확고한 칼뱅주의자로서 처음에는 캠벨의 개혁에 공감했지만 신학적인 차이로 인해 캠벨과 결별하고 출판을 중단하였다.

2) Alexander Campbell, “Letters to England No. 1,” Millennial Harbinger, June 1837, 272,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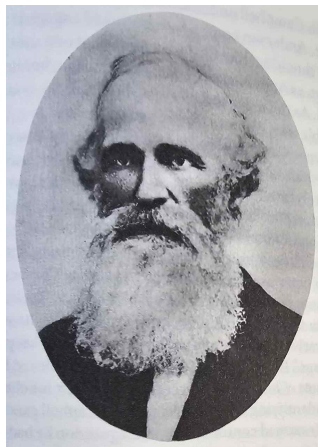
3) 글쓴이는 버지니아 교회 지도자 앨버트 앤더슨(Albert Anderson)의 아내인 루이사 앤더슨(Luisa Anderson)이었다. 두 사람 모두 존 토마스(John Thomas)의 지지자였다. 참조: David Lertis Matson, “Who Wrote the Lunenburg Letter? The Untold Story of the ‘Conscientious Sister’ of Lunenburg,” Stone-Campbell Journal 11(Spring 2008): 3-28.

나 속합니까, 아니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침례를 받아 장사된 자들에게 속합니까?”<sup>4)</sup>

평소와 마찬가지로 캠벨은 이 서신이 도착했을 때 여러 가지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4월에 만인구원론자 돌퍼스 스킨너(Dolphus Skinner)와 서면 토론을 시작하였고, 앞전 1월에는 신시내티에서 열렸던 가톨릭주교 존 뱁티스트 퍼셀(John Baptist Purcell)과의 토론을 출판하는 일로 세부 사항을 놓고 그와 다투고 있었다. 또 최근에 캠벨은 자신의 운동을 이끌고 있는 (의사 존 토마스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지도자로부터 공개적인 질책을 받았다. 토마스는 캠벨이 그 토론에서 배도한 개신교를 대표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캠벨은 갈등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회심에서의 성령의 역할에 관해 침례교 목사 사무엘 W. 린드(Samuel W. Lynd)와 논쟁을 펼쳤고, 자신의 새 번역이 비삼위일체적이라고 비난한 두 개의 침례교 논문과도 논쟁 중에 있었다.

루넨버그 서신에 깔린 갈등은 캠벨과 의사인 존 토마스 사이를 수년 동안 달구고 있었다. 토마스는 1832년 영국에서 이주하였고, 빠르게 캠벨운동의 일부가 된 인물이었다. 처음에 캠벨은 토마스를 재능 있고 합당한 전도자로 지지하면서 그 운동에 전임할 것을 권하였다. 토마스는 약 1년간 필라델피아에서 설교한 후 리치먼드로 이사하였고, 1834년 5월에 「사도의 대변자」(Apostolic Advocate)지를 창간하였다.

토마스는 영혼, 부활, 침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들을 설명하는 일련의 기사들을 출판할 때까지는 캠벨의 호의를 누렸다. 토마스는 인간의 영혼이 살아 있는 육체 그 자체에 지나지 않으며 별도의 존재가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만이 사후에 부활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영혼의 잠자는”(soul sleep) 상태에 남게 될 것이다. 게다가 그는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가르치려는 열정에서 개혁교회(신약성경교회)의 일원이 되고자하는 침례교인들에게 재침수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였다.



[존 토마스(1805-1871)는 1832년에 미국에 건너와 캠벨의 개혁에 동참한 영국의 의사였다. 그는 결국 여러 가지 교리적 문제, 특히 교회에 대한 견해와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견해로 캠벨과 결별하였다. 그는 1847년에 재침례를 받았고, 결국 '그리스도아델피안'(Christadelphians)을 설립하였다. 웨스트버지니아 주 베다니에 소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사학회의 허가를 받아 사용됨.]

캠벨은 토마스의 재침례에 관한 입장, 영혼에 대한 “유물론적” 견해, 부활에 대한 견해를 비난하였다. 논쟁은 184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며, 1844년 토마스가 리치몬드 교회를 캠벨 운

4) Alexander Campbell, “Any Christians between Protestant Parties” Millennial Harbinger, September 1837, 411.

동에서 철수하여 나중에 ‘그리스도아델피안’(Christadelphians)으로 알려진 ‘그리스도 안의 형제회’(Brethren in Christ)를 결성하면서 마침내 단절되었다.<sup>5)</sup>

캠벨은 제임스 월리스(James Wallis)에게 편지를 보내기 한 달 전인 1837년 7월에 버지니아 주 동부지역 전도자인 앨버트 앤더슨(Albert Anderson)이 보낸 편지를 공개하였다. 앤더슨은 분쟁하는 캠벨과 토마스의 행위를 질책하였다. 앤더슨은 두 사람에게 다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 다 성격을 지나치게 드러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며 피차 온유와 사랑으로 대했어야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앤더슨은 권면 끝부분에서 캠벨에게 추가로 질책을 가하면서 캠벨이 나이가 더 많고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한 토마스보다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캠벨은 답변에서 자신이 사과해야 할 글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진리나 예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토마스가 「사도의 대변자」(Apostolic Advocate)지에서 보인 분열적인 행동과 글들을 막기 위해 움직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sup>6)</sup> 이러한 사건들은 루넨버그에서 보내온 서신과 캠벨의 강력한 대응의 배경이 되었다.

캠벨은 루넨버그 서신에 대한 답변을, 만약 개신교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가톨릭 교인, 유대교인, 튀르키예인(무슬림), 이교도 중에도 확실히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명제로 시작하였다. 그것은 수 세기 동안 “예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거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자신 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지만, 음부의 권세가 자신의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식별하는 것과 관련하여 캠벨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시대의 복음과 관례가 확립된 이래로 자신이 취했던 입장과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단순한 정의를 내렸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인가? 나는 대답한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에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의 분량대로 범사에 순종하는 모든 자다.”<sup>7)</sup>

그런 다음 캠벨은 고의적인 불순종이나 의도적인 무지를 정직한 오해와 예리하게 구별하였다. 침례에 대해 착각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깊이 헌신하였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해하는 한 순종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수세례 하는 것조차도, 어떤 한 가지 의무를 그리스도인의 상태나 품성의 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는 유아시기에 자신의 지식과 동의 없이 약식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로 간주한다.”<sup>8)</sup>

캠벨에게 있어서 침례라는 중요한 행위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궁극적인 증거였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찾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며, 이것은 몇 가지 것들에 대한 정확성에 있지 않고, 알려진 모든 진실에 대한 전반적인 헌신에 있다.… 침수세례를 받은 자들 외에는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추론하는 사람은 명확하고 완벽한 시력을 가진 사람 외에는 살아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만큼이나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만일 그가 유아기에 약식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리스도교 성경에 더 지적이고, 영성에 더 밝

5) Terry Cowan, “Thomas, John,” in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ed. Douglas A. Foster et al. (Grand Rapids: Eerdmans, 2004), 741-42; Matson, “Who Wrote the Lunenburg Letter?,” 6-12.

6) Albert Anderson, “Special Correspondence,” *Millennial Harbinger*, July 1837, 330-33.

7) Campbell, “Any Christians among Protestant Parties,” 411.

8) Campbell, “Any Christians among Protestant Parties,” 412.

으며, 주님께 더 헌신적인” 사람과 침수세례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동의한 사람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가장 사랑하는 그분에게 내 마음의 우선권을 드림에 있어서 잠시도 망설일 수 없다”고 하였다.<sup>9)</sup>

이 기사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캠벨은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지 10월호에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는 주의”(Opinionism)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토마스와의 그의 추종자들처럼 그들 자신의 비정상적인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자들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캠벨은 양심적 자매에게 응한 자신의 진술에 대해 비판이 점증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침수세례를 받은 신자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우리는 그들이 침수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는 로마서 2장 29절에서 참 유대인은 내면적 유대인이고, 참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에 하는 것이며,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는 바울의 주장을 제기하였다. 캠벨은 “우리 가운데 내면적 외면적(inward and outward) 그리스도인들이 없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항상 내면적 외면적 모두 다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바울이 할례에 관해 말한 것처럼 외적인 침례를 정직하게 오해한 사람도 내적인 침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하였다.<sup>10)</sup>

캠벨은 루넨버그 서신(Lunenburg letter) 기사들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시민들”이었던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한 재침수세례를 “신약성경이 전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sup>11)</sup> 재침례를 반대하는 캠벨의 입장은 의심할 바 없이 존 토마스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재침례를 옹호하는 자들이 늘어나자 그에 대한 대응으로 형성되었다. 11월에 캠벨은 자신이 이것들을 항상 믿어 왔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독자들에게 그것들을 피력해왔다고 주장하면서 1830년에 쓴 자신의 첫 번째 ‘죄 사함에 관한 부록’(Extra on Remission)을 하나의 예로 들었다.<sup>12)</sup>

그러나 캠벨의 구원에 관한 가장 설득력 있고 강력한 표현의 일부가 등장한 것은 루넨버그 서신 기사들에서였다. 12월에 그는 이렇게 외쳤다.

사례는 이렇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고, 그의 친밀한 친절과 동정심 및 형편이 허락하는 한 활동적인 자선에 한계를 모르며, 그리스도인 집회에 결단코 자리를 비우지 않고, 주어진 모든 의무를 철저히 순종함으로 자신의 내적 경건과 헌신이 입증되며, 자신의 가족이 주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받고, 성경을 자신의 항구적인 동반자로 삼는 사람을 내가 볼 때, 나는 말한다. 내가 이방인과 세리들 사이에서 그 같은 부류의 사람을 볼 때, 왜냐하면, 그는 결코 묻지 않았고, 그가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항상 당연시했기 때문에, 그 조차도 이 모든 공적, 사적 미덕이 크게 결여된 사람한테서, 그 사람의 주된 혹은 유일한 추천이 그가 침수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복음에 대한 성경적 이론을 갖고 있다는 사람한테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나는 그 같은 사람에게 아첨할 마음이 없고, 오히려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싶다. 그리고 나는 어느 교파에서든 가장 뛰어난 교수가 예수님의 모든 계명 중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꺾어놓도록 이끌지 않겠지만, 바울이 자신이 만들지 아니한 한 체계(역자 주: 할례)를 자랑한 유대인 형제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침수세례를 받은(역자 주: 자랑하는) 나의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형제여,

9) Campbell, “Any Christians among Protestant Parties,” 412-14.

10) Alexander Campbell, “Christians among the Sects,” Millennial Harbinger, November 1837, 506-7.

11) See, for example, Alexander Campbell, “Re-Immersion. Letter from a Correspondent in Eastern Virginia,” Millennial Harbinger, August 1835. 419.

12) Campbell, “Christians among the Sects,” 506.

그의 무할레나 무침례가 그 사람에게는 침례로 간주되지 않겠습니까? 또 문자적이고 참된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왕(역자 주: 하나님)의 율례들을 범하거나 소홀히 하는 당신을 그가 (역자 주: 무침례자가) 정죄하지 않겠습니까?”<sup>13)</sup>

캠벨은 “양심적인 자매”가 보낸 서신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 그녀는 존 토마스의 지지자였다. 토마스는 죄 사함을 위해 침수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침례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호칭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심지어 침수세례를 받은 신자들에게조차도, 침례 주례자와 피침수자가 죄사함을 위한 침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 밖에 남아 있다고 하였다. 캠벨은 버지니아 주 동부 소재의 자신의 개혁신교회들에서 토마스의 지지자들이 다른 교파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총체적이고 부당한 모욕을 퍼붓고 있다는 소식에 속이 뒤집어졌다. 캠벨은 토마스가 장 칼뱅을 “그리스도 신앙의 대 왜곡자”(the Arch Perverter)로, 감리교 성직자들을 “용자리의 양들”(Draconic Lambs)로, 모든 개신교 교파들을 “사탄의 회당”(Synagogues of Satan)으로 낙인찍는 것을 책망하였다.<sup>14)</sup> 저들이 침수세례에 대해서는 옳을지 몰라도, 저들이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경건하지도 기록하지 않은 저들을 캠벨이 비난한 것은 그러한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대응이었다.

캠벨은 루넨버그 서신의 배후에 숨은 동기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대응을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아마도 이전의 어떤 경우보다 더 담대하고” 더 강력하며 더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였다.<sup>15)</sup> 그러나 그 후 3년이 지나면서 그가 루넨버그 서신에 대한 답변에서 표현한 신념을 고수하고 결코 철회하지 않았지만 그것들이 자신의 가르침의 주된 강조점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여러 가지 면에서 피차 주고받은 그 논쟁은 자신의 개혁에 대한 바로 그 정체성에 대한 투쟁을 반영했고, 또 그는 그것을 느꼈다.

캠벨은 루넨버그 서신 기사들에 담긴 포괄적인 진술들을 항상 자신의 신념이었다고 변호하였지만, 자신의 견해들에는 고의로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자신이 받은 비판의 수위에 놀랐는지, 캠벨은 죄 사함을 위한 침수세례에 관한 자신의 강한 신념을 반복하기 시작하였다. 전환은 세 번째 기사 말미에서 시작되었다. 만약 그가 교파들을 욕설하고 “그리스도교가 보편적인 거룩함보다 침수세례에 더 중점을 두도록” 만드는 사람들에게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서신에 다르게 대답했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Christian)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성경적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습관적으로 믿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sup>16)</sup> 독자들은 여기에 회개와 신앙고백에 따른 죄 사함을 위한 침수세례가 포함된다고 올바르게 생각했을 것이다. 캠벨은 말하기를, 자신이 그 서신에 대한 자신의 첫 번째 회신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가장 엄격한 성경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 즉 교리적 입장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방식에서 사용하였다고 했다. 그런 의미

13) Alexander Campbell, “Any Christians among the Sects?,” *Millennial Harbinger*, December 1837, 565. 역자 주: 로마서 2:26-27 참조, 캠벨은 이 글에서 존 토마스와의 그의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침수세례 또는 재침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14) Campbell, “Any Christians among the Sects?,” 566; Alexander Campbell, “Extra, No. I. - New Series,” *Millennial Harbinger*, December 1837, 580, 588.

15) Campbell, “Any Christians among the Sects?,” 564-67; Campbell, “Christians among the Sects,” 506.

16) Campbell, “Any Christians between the Sects?,” 566-67.

에서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들 속에는 내가 바라기는 주께서 용서하실 그들의 오류들과 실수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또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 그 왕국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들이 의인들의 부활에는 참여할 수 있기를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기대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독자들에게 “우리 모두는 완전함을 향해 배우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sup>17)</sup>

1837년 12월, 캠벨은 자신과 존 토마스와의 논쟁의 역사를 설명하고 토마스를 거짓 교사로 밝히며 이전 기사들에서 자신이 진술한 것들을 다시 정당화하기 위해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지의 별책부록을 출판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토마스를 시드니 리그던(Sidney Rigdon)에 비교하였는데, 리그던은 캠벨의 개혁에서 이탈하여 모르몬교 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캠벨은 독자들에게 자신이 지난 11월에 “토마스가 분파주의자가 되었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신약성경의 신앙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와의 교제를 끊겠다고 선언했음을 상기시켰다.<sup>18)</sup> 캠벨은 개혁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침례교 교인들에게 신앙고백과 재침수세례를 요구하는 토마스의 관행을 “전례 없는” 일로 규정하고, 토마스가 죄 사함을 위한 신자들의 침수세례를 실천하지 않는 교회들의 출석자들에게 퍼부은 극단적인 언어폭력을 비난하였다.<sup>19)</sup>

그런 다음 캠벨은 토마스의 가르침 중 두 가지가 핵심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공격하였다. 토마스가 죽은 자들의 일반적인 부활이 없을 것이고, 세상에 대한 보편적인 심판도 없을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캠벨의 결론은 토마스의 견해에 기초한 것이었다. 토마스가 인간의 영혼을 단순히 움직이는 육체 자체라고 하였기 때문인데, 캠벨은 그의 주장에 ‘유물론’이라는 딱지를 붙였다.<sup>20)</sup> 캠벨은 별책부록의 마지막 단락에서 명확한 최후통첩을 발표하면서 토마스가 지도자로서 잃어버린 명성과 효율성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자신의 독단주의를 버리고 자신의 행보를 되짚어보며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관한 글을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sup>21)</sup>

그 후 2년 동안 캠벨은 이 논쟁에 관해 거의 아무 글도 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크리스티아노스’(Christianos)로만 확인된 지지자들 중 한 명, 곧 캠벨의 처남 아치볼드 맥키버(Archibald McKeever)로 추정되는 인물과 토마스의 동조자들인 토마스 M. 헨리(Thomas M. Henley) 및 마티아스 위난스(Matthias Winans) 사이에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허용하였다. 크리스티아노스는 캠벨의 이전 진술들을 옹호하고 확장하면서 토마스파의 입장을 힘차게 공격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의지와 애정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사람은 (그가 그 뜻을 불완전하게 이해할지라도) 수용할만한 하나님의 예배자이다”라고 주장하였다.<sup>22)</sup> 헨리와 위난스는 죄 사함을 위한 침례가 성경말씀의 분명하고 틀림없는 가르침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에 대응하였다. 따라서 죄 사함을 위해 침수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하였다.<sup>23)</sup> 캠벨은 논평 없이 토론이 진행되는 것을 허용하였지만 연재(連載)가 끝날 때마다 양측 진술에 대한 평가를 작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

17) Campbell, “Any Christians among the Sects?,” 567.

18) Campbell, “Extra, No. I-New Series,” 578.

19) Campbell, “Extra, No. I-New Series,” 580, 588.

20) Campbell, “Extra, No. I-New Series,” 582.

21) Campbell, “Extra, No. I-New Series,” 588.

22) Christianos, “Christians among the Sects,” *Millennial Harbinger*, January 1839, 44.

23) 예를 들어 Thomas M. Henley, “Christians among the Sects-No. I,” *Millennial Harbinger*, March 1839, 124-25를 참조하십시오. 헨리(Henley)와 위난스(Winans)는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여러 기사를 썼다.

크리스티아노스(Christianos)는 1840년 7월에 “교파들 사이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의 기사 10편과 “우리의 이름”, “침례”, “적극적 의식들”이라는 제목의 관련 글 3편을 마지막으로 출판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캠벨은 “교파들 사이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자신이 신경 쓰는 모든 것을 출판했다고 느꼈다. 4월에 캠벨은 크리스티아노스와 자신을 반대하는 두 기고자들의 생각을 평가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캠벨은 세 사람 모두 좋은 말을 했지만, 옅의 친구들처럼, 그들이 전제 그 자체들에서보다 그 전제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틀렸다는 말로 시작하였다. 캠벨은 위난스(Winans)를 “심각하게 틀에 갇힌 논리학”로, 헨리(Henley)를 “타협하지 않는 중재자”로 비판하면서 크리스티아노스의 신념을 다른 두 사람의 신념보다 “훨씬 더 위안적”이라고 칭찬하였다. 우리가 자기 자신들의 잘못 없이 침례의 형식을 오해한 신실한 예수의 추종자들을 모두 분명하게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24)</sup>

그러나 놀랍게도 캠벨이 비판한 내용은 크리스티아노스에 반대한 것이었다. 캠벨은 성경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실상 모든 사람이) 침례에 관한 무지름, “의식이 부족하든 정직성이 부족하든,” 거의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캠벨은 사람의 마음 상태가 “모든 것”이라는 크리스티아노스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적인 의식들(역자 주: 침례와 주의 만찬) 없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적절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지를 묻고, 단순히 복음적인 의식들을 받기에 적절한 성향을 지닌 것과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캠벨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신의 이전 정의들과 유사하게 그 이름의 국가적, 교파적, 성경적 용도를 구별하였다. 분명히 국가교회와 교파들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실제로 그들 중 상당수는 자신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거부한 침수세례자들보다 더 독실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는, 캠벨은 계속하기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수세례를 받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적용되었다고 하였다.<sup>25)</sup> 캠벨의 강조는 존 토마스(John Thomas)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또 자신의 개혁운동에서 토마스의 입장으로 옮겨가는 추가 이탈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였다.

캠벨은 침례와 같은 복음적 의식들에 대해 단순히 착각하는 것과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캠벨은 생각이 분명한 신자라면 누구나 정직하게 실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캠벨은 1837년에 펼친 자신의 강력한 주장들을 누그러뜨린 말로 크리스티아노스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였다. “빛이 점증하는 이 시대에, 나는 본의 아니게 무지한 경우가, 내 의견으로는, 점점 더 적어지고 있고, 구주의 교훈을 마음으로부터 검토하고 순종하지 않거나 않을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의 희망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음을 고백한다.”<sup>26)</sup>

자신의 개혁에 대한 외부인과 내부인 모두의 지속적인 공격은 캠벨의 관용에 타격을 입히고 있었다. 수년 동안 죄 사함을 위한 침수세례의 교리를 만들고 전파한 후, 캠벨은 침수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다.

24) Alexander Campbell, “Review of Christians among the Sects-No. I,” Millennial Harbinger, April 1840, 162-63.

25) Campbell, “Review of Christians between the Sects-No. 1,” 164.

26) Campbell, “Review of Christians between the Sects-No. I,” 164.

토마스 와 그의 추종자들과의 논쟁에는 캠벨의 개혁운동에 어떤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포함되었다. 이 질문은 운동의 정체성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 토론은 1839년 5월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지에 실린 조지아 주 엘버트 카운티의 T. W. 러커(T. W. Rucker)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되었다. 러커는 캠벨에게 교회들이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달라고 간청하였다.<sup>27)</sup> 캠벨은 8월에 그리스도인 침례자(Christian Baptists), 개혁가(Reformers), 캠벨파(Campbellites)를 포함하여 그동안 사용되었던 호칭들을 나열하고 평가하면서 답변을 시작하였다. 그는 오직 두 가지 명칭, 곧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캠벨은 다음 기사에서 그것들에 대해 판결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였다.<sup>28)</sup>

9월에 캠벨은 성경에 나오는 두 개의 용어들 중에서 네 가지 이유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더 좋다고 제안하였다. 첫째, “제자들”이 오순절 날 교회가 출범한 직후부터 사용된 더 오래된 용어인 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로 불린 것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였기 때문이다. 둘째, 그것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인 것은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추종자나 제자에 근접하기보다 “그리스도인 국가”와 같은 국가적 명칭에 더 근접한 말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그것이 더 성경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 사도행전에서 단지 두 번만 쓰였고, 그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안디옥의 주민들과 헤롯 아그립바의 입을 통해서만 쓰인 반면에 “제자들”은 30회 이상 쓰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일컬어 가장 흔하게 사용한 명칭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캠벨은 자신의 개혁운동을 따르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그들을 유니테리언파(Unitarians)와 아리우스파(Arians)로 착각할 것을 우려하였다. 유니테리언파와 아리우스파는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행하지 않고 매 주일 주의 만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그룹도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이란 명칭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캠벨은 주장하였다.<sup>29)</sup>

이것에 대해 부친 토마스 캠벨과 발톤 W. 스톤(Barton W. Stone)을 비롯하여 많은 지도자들이 캠벨에게 동의하지 않았다. 스톤과 알렉산더 캠벨은 몇 년 전 그들 각각의 운동들(역자 주: 캠벨의 개혁운동과 스톤의 그리스도인 운동)에 속한 교회들이 여러 지역에서 통합을 시작할 때 이것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다. 스톤은 캠벨이 거론한 “제자들”을 선호하는 네 번째 이유가 개인적으로 자신을 공격한 것이라고 느꼈다. 스톤은 “유니테리언”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 삼위일체론자는 분명히 아니었다. 스톤은 침례를 베풀 때, 캠벨만큼 죄 사함을 위한 침례 교리를 믿었지만, “나는 죄 사함을 위해 침례를 주노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스톤은 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기기 전에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스톤은 당신이 교파들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당신도 같은 것을 믿는다고 주장하였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다. 그러므로 교파들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 사함을 받았으므로 그 목적을 위해 침수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스톤은 캠벨이, 그가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로 알려진 새로운 교회(교파)를 만들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캠벨에게 해명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압

27) T. W. Rucker, “News from the Churches,” Millennial Harbinger, May 1839, 236.

28) Alexander Campbell, “Our Name: Disciples, Christians, Reformers, Campbellites,” Millennial Harbinger, August 1839, 337-39.

29) Alexander Campbell, “Our Name,” Millennial Harbinger, September 1839, 401-3.

박하였다. “저는 정말 바랍니다... 당신이 또 다른 하나의 교파를 세우려고 계획하지 않기를... 삼위일체론자들과 협력하여 유니테리언들에 대항하려고 계획하지 않기를...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특히 성경만을 신앙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는 사람들을 비그리스도인화 하려고 계획하지 않기를... 경건한 신자의 의견이 당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교제에 빗장을 지르지 않기를... 형제님, 꼭 제게 통지해주시시오.”<sup>30)</sup>

캠벨은 답변에서 이름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들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들에 지나치게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질투심이 생겨 자신에게 도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불평하였다. 하지만 캠벨은 자신의 부친이나 스톤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빠르게 선을 그었다. 그는 스톤에게 자기가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한다면 스톤이 지나치도록 예민하게 반응한 것을 비난하였다. 그런 다음 캠벨은 “제자들”을 선호하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설명하였으며, 스톤이 침례를 베풀 때 “죄 사함을 위하여”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고백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마무리하였다. “나는 오직 하나의 침례만 믿으며, 또 죄 사함을 위한... 만일 교파에 속한 이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침례를 받고 싶어서 내게 온다면, 나는 그에게 그 사람의 교파의 죄들, 특히 주님의 의식들(역자 주: 침례와 주의 만찬)에 대한 그의 무지와 오랜 의무 태만의 죄들의 사함을 위해 침수세례를 베풀 것입니다.”<sup>31)</sup>

이 답변의 어조는 2년 전 그의 그들의 어조와 매우 달랐다. 이제 그는 죄 사함을 위한 침례의 가르침과 구원과 교회일치에 있어서 침례의 본질적인 역할을 약화시키려고 위협하는 모든 것 또는 누구에게나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

1837-1840년의 사건들이 캠벨의 구원론과 교회론, 곧 당시와 현재에 그의 개혁을 심오하게 형성한 신학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많은 사람들이 캠벨을 명백히 일관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았는데, 캠벨이 때로는 “경건한 미침수자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던 반면, 다른 때에는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액면 그대로 볼 때, 그가 말하는 내용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캠벨은 비밀관성들을 알고 있었는가? 캠벨은 자신의 입장을 바꾸긴 했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가? 캠벨은 자신의 개혁운동에 대한 독특한 신학적 통찰력을 절충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보다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발언들에서 물러섰는가? 아니면 그는 나중에 그들의 견해에 관계없이 자신이 그들을 지지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 사람들에게 꼴을 제공할 창조적 긴장, 곧 역설에서 모순적 신념처럼 보인 것들을 결속시켰는가?

캠벨이 총체적으로 일관성이 없다거나 압박에 굴복하여 입장을 바꾸는 것으로 일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캠벨의 모든 진술들은 당시 그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한 구체적인 위협에 대응한 것이었다. 캠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침례 신학을 정말 발전시키고 있는데, 장로교인 존 워커(John Walker)와 윌리엄 맥칼라(William Maccalla)와의 토론들에서 변화하고 있는 입장들에서 알 수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캠벨은 성경적 침례가 죄 사함을 위한 신자들의 침수세례였다는 확고한 확신에 도달했을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회심이었다(was)고 주장하기도 했다.

1840년 11월 「새천년시대의 선구자」지에 실린 “연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캠벨은 죄 사함을 위한 침수세례와 가시적 그리스도인 연합의 목표 사이에서 그가 본 밀접한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었다. “나는 한 주님, 한 믿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해 그리스도와 합하는 한 침수세례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예수의 참되고 충성스러운 모든 친구들의 의무라고 주장

30) Barton W. Stone, “Communication,” *Millennial Harbinger*, January 1840, 21-22.

31) Alexander Campbell, “And Our Name,” *Millennial Harbinger*, January 1840, 29.

합니다. 그리스도 이후 1,200년간 죄 사함을 위한 침수세례는 모든 그리스도교 세계, 곧 히브리인들,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의 관행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말해왔고 지구상에서 가장 확실한 기록들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sup>32)</sup>

캠벨이 1851년에 『그리스도인 침례: 그것의 전례들과 결과들』(Christian Baptism: With Its Antecedents and Consequents)을 출판할 때까지 루넨버그 서신 관련 글들에서 그가 쓴 포괄적 진술들에는 어렵פות한 이해만이 남아 있었는데, 주로 그 책 끝에 있는 교리문답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었다. 126번 질문, 곧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유아들에게 약식세례를 베풀거나 유아기에 세례를 베풀지 않는가?”에 대한 대답에서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유아세례 관행에 정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다음 대답에서 캠벨은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다른 “인위적인 전통들”을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유아에게 베푸는 약식세례의 효과에 관한 128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캠벨은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과 그것의 정확성을 의심하거나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것을 대조하였다. “전자는 단순한 실수이고 후자는 고의적인 범법이다.” 그러나 캠벨은 계속해서 129번 항목에서 진리에 접근하기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모두는 고의적인 범주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수세례를 받은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참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그는 131번 항목에서 단언하였다.<sup>33)</sup>



[41세 때의 알렉산더 캠벨. 웨스트버지니아 주 베다니 소재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사학회의 허가를 받아 사용됨.]

죄 사함을 위한 침수세례의 필요성을 캠벨보다 더 강하게 주장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루넨버그 서신(Lunenburg letter) 관련 글들에서 표현된 침례의 신학적 중요성에 대한 캠벨의 이해는, 침례에 대한 그의 엄격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존 토마스(John Thomas)와 그의 추종자들이 조장한 필연적으로 보이는 율법주의적이고 분열적인 결론들을 그가 막아내도록 해준 다른 헌신들을 보여준다. 그는 오늘날에도 그의 후계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느껴지는 긴장감 속에서 모순된 이해처럼 보이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냈다.

32) Alexander Campbell, “Union,” Millennial Harbinger, November 1840, 486.

33) Alexander Campbell, Christian Baptism: With Its Antecedents and Consequents (Bethany, VA: Alexander Campbell, 1851), 433-34.